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당분간 KOBACO체제 유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독점판매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시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 움직임이 분주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입법안만 7개에 이른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된 채 답보상태에 있던 미디어랩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통과된다 해도 민영미디어랩 사업자 허가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방송통신 산업전망 대토론회에서 방통위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은 2월 개정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3~4월 시행령 개정, 5~6월 규칙 고시 확정과 함께 사업자 허가 기본계획, 중소방송 지원 방안과 회계기준 수립 등 사후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상반기 내 새로운 방송광고시장체제의 제도적 틀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말 지상파 방송3사에 미디어랩 법안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첫째, 방송편성 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 둘째, 종교 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 지급하는 등 거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넷째, 방송광고판매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해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신속한 협의 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시까지 방송광고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통위 권고대로 코바코를 통한 판매 유지

지상파 방송3사는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코바코를 통한 광고판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김한모 광고본부장은 '미디어랩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1월 1일부터 방송사 직권이 가능하나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코바코 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일단 2월까지 코바코 체제로 판매하고 2월 임시국회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랩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비해 여러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방으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반기 광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코바코와 상의해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MBC 역시 미디어랩 법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코바코를 통해 광고판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미디어랩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솔직히 반반으로 보고 있기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영업시스템과 관련해서는 SBS, MBC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만 마련된다면 직접 영업을 위한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S는 미디어랩 도입 문제는 수신료와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방송3사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로 광고영업 준비중

방송3사는 올 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영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상 50시간인 올림픽 중계를 소외종목까지 다 포함해 200시간으로 잡고, 실시간방송 및 프라임시간대 재방송을 계획 중이다. 시청률이 적합한 시간대에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을 오가며 크로스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한편, 나이트라인 전 11시대에 하이라이트 방송도 계획 중이다. SBS는 또 창사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월 동계올림픽은 SBS가 단독중계를 하더라도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고 있어 남아공 월드컵은 단독중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MBC는 드라마왕국답게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1월말 인기작가 김정수씨가 극본을 쓴 '민들레가족'을 필두로, 지진희 한효주 주연에 3월부터 방송예정인 대하사극 '동이', 그리고 6월부터 방송예정인 전쟁미니시리즈 '로드넘버원'에는 배우 소지섭, 김하늘이 주연으로 예정돼 있다.

KBS는 현재 23%대의 시청률(AGB닐슨 자료)을 기록하고 있는 '공부의 신' 후속으로 3월부터 새월화드라마 '부자의 탄생'을 준비 중이다. 30%가 넘는 시청률을 보이는 '추노' 후속으로는 문근영, 천정명, 택연이 출연하는 수목드라마 '신데렐라 언니'가 기다리고 있다. KBS의 주말연속극 '수상한 삼형제'는 현재 34%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 **KBS 취재 | 이수지**

